

지역 소식통



**용진읍-정성산후조리원 업무협약
저소득·다문화가정 산후조리 지원**

완주군 용진읍이 정성산후조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의 산후조리를 지원한다.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성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의 임신여성의 산전 상담과 출산을 돕고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정성산후조리원은 "비싼 비용으로 제대로 된 돌보아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친정엄마처럼 정성껏 돌보겠다"고 밝혔다.

최우식 용진읍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읍에서도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 지평선 쌀밥집
육성 보고회 개최**

김제시보건소는 김제 지평선 쌀밥집 육성에 따른 쌀밥집 메뉴구성 완성을 위해 21일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8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타지역 우수 쌀밥집에 대한 시장조사한 견학팀의 평가서와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1차 초안이 마련된 지평선 쌀밥집 메뉴구성에 대한 보고회였다.

식품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업무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해 가격대별 메뉴가 완성되고, 최종 시식의 평가를 통하여 9월 초 정도에 다이어그램에서 지평선 쌀밥 정식 선보이게 된다.

지평선 쌀밥은 김제시가 지평선 공동브랜드로 인증한 품질이 우수한 쌀을 쌀솥에 즉석으로 밥을 지어 내 밥맛이 좋고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전통적 조리법으로 요리하여 고향의 맛과 옛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은 "맛있는 지평선 쌀밥을 먹고 가는 관광객이 그 맛이 생 각나 가정에서도 김제 지평선 쌀을 애용하고 판매에서는 경쟁음식점이 늘어나 김제하면 떠오르는 대표음식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로컬푸드 활용 일자리 발굴

완주군, 문 정부 기조 맞춰 대규모 일자리사업 준비키로

완주군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발표에 따라 일자리 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완주군은 일자리사업 발굴보고회를 갖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우선 완주군은 성공적으로 정착된 로컬푸드를 활용해 일자리를 발굴시키고, 또한 로컬푸드 수준의 대규모 일자리사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군이 발굴한 일자리 사업은 총 51건으로 기업유치부터 로컬푸드 확산사업, 사회적경제, 공공경제까지 6개 공무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완주군은 추후 각 부서에서 국가에 산 확보, 전문가 의견수렴, 세부추진 계획 수립 등을 거쳐 구체화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일지러는 국정의 핵심과제이자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일자리를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군정을 모으고 있다"며 "군민의 눈높

이에 맞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일자리창출로 '옴도시 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 회전교차로 개통

비정형 교차로 개선 차로 불균형 해소

완주군이 이서면 반교리 전주완주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구 지방행정연수원) 인근 회전교차로를 정식 개통했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 교차로는 전주완주혁신도시 조성시 설치된 비정형 교차로로 차로수가 일치하지 않은 불완전 교차로였다. 이로 인해 야간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이 제기됐었다.

완주군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지난 5월 공사착공, 차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차량 속도저감 방안으로 S커브를 도입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마무리했다.

회전교차로는 진입차량보다 회전차



량 우선으로 운전자 상호 양보가 필요한 선진국형 교통체계다.군은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져 운전자들에게 원활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고, 연료소모와 배출가스 감소로 친환경에도 도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역 주민들과

우려 완주군을 방문하는 의지인에게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모두의 양보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경찰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김제경찰서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매일 2회 김제소세 한울타리, 김제대하노인회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홍보 활동과 플래카드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제경찰서 관내에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명의 교통사고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보행자가 3명(37.5%)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자 사망자 3명중 2명(67%)이 노인(65세 이상)이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밝은옷 착용 등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있으며 대형전광판에도 홍보를 병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훈기 김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보행자 특히 노인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 뿐만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택시 과잉공급 해소위해 발벗고 나서

택시 감차위원회 개최

김제시가 최근 재난상황실에서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개인택시 2대, 법인택시 1대를 감차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 5,500만원, 법인택시 2,200만원으로 확정했다. 택시 감차사업은 택시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택시 승객이 감소해 택시업계의 경영위화, 종사자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4년에 제3차 택시 총량조정 운영 추진결과, 김제시는 택시 적정 면허대수 337대 대비 85대가 과잉 공급되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85대를 감축해야하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으며, 지난 2년간(2015~2016) 개인 및 법인택시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인택시 36대, 개인택시 2대 등 총 38대를 감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올해에도 3대를 더 감축하기로 의결하고 앞으로 택시 감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심의위원장인 임성근 안전개발국장은 "택시 업계의 어려운 경영난을 다스리자 해소하고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4년까지 기한 내에 택시 감차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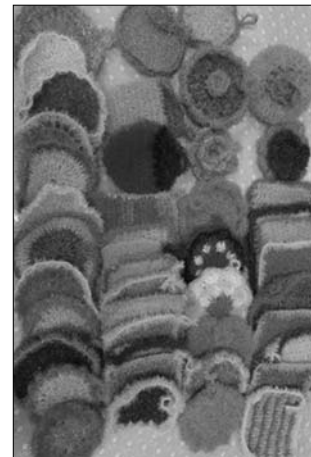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건강한 뇌 운동 프로그램 수세미 뜨개질 실시

김제시보건소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35개소 한울타리 행복의집(그룹-홀) 입소자 및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순회 방문을 통하여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제품 만들기 '수세미 뜨개질을 실시한다.

건강한 뇌 운동프로그램인 수세미 뜨개질은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과 복지정책으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들의 치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한울타리 행복의집(그룹-홀)에서는 뇌 운동 및 인지훈련프로그램 일환으로 수세미 뜨개질을 실시하게 되었다.

뜨개질을 하면 첫째는 심박수와 혈압을 진정시키고 둘째는 손가락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뇌의 신경경로가 강화되어 뇌의 기능 유지, 셋째는 뜨개질은 수를 세는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아져 두뇌체조가 됨으로써 기분전환이 가능하며, 우울예방,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몸과 마음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검사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건강한여름나기 생활 교육과 더운 날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수칙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행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행 진택산업과
063-430-2951